



노사 '타임오프(Time-Off)제' 합의 위원장·사무국장 등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2명 유지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 1~2명 지정 가능

노사가 지난해 12월 '타임오프(Time-Off)제'를 합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 교섭, 산업 안전, 고충 처리 등 노무 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노조는 조합원 수에 비해 종전과 같이 위원장·사무국장 등 2명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둘 수 있고, 2명 이내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지정할 수 있다.

노조는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근 방안(1명 6개월 또는 2명 3개월씩)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정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노사는 이외에 노조가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를 제외한 전임자를 추가로 원할 때는 조합에서 임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노사 합의로 전임자수와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합의안은 풀타임·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가 임기를 마치면 즉시 원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복귀토록 하는 등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했다.

합의안은 지난해 말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박정찬 사장과 문성규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합의문 등에 대한 조인식을 가졌다.

단협 수정안(타임오프제) 주요 사항

● 신설 안

| 항 | 목 |
|--------|--|
| 제21조의2 | 제21조의2(근로시간면제자) ①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로시간면제자를 둔다. 1.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 2명(위원장, 사무국장)/연간 4,000시간 2.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 2명 이내(조합 지정.통보)/연간 1,000시간 ②전항의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없이 면제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근로시간면제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조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협의하여야 한다. |
| 제21조의3 | 제21조의3(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 ①근로시간면제 사용가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업무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 업무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고충처리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입회.의견청취 업무 5.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규약상 정기총회.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 |
| 제21조의4 | 제21조의4(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처우) ①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제21조의2(근로시간면제자), 제21조의3(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의 근로시간면제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는 계속근무로 간주하고 재해보상과 연차수당 및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③근로시간면제자 지정 해제 시 즉시 원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복귀시키며 원직 소멸시에는 동등한 직에 복직시킨다. 단,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전임자로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개정 안

| | 기 존 안 | 개 정 안 |
|-----|---|---|
| 22조 | 제22조(조합전임.상근) ①회사는 조합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전임자가 조합업무에 상근함을 인정한다. ②조합은 전항의 전임자 결정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 제22조(조합전임자) ①조합은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다. ②조합은 전임자 수와 전임대상자 결정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한다. |
| 23조 | 제23조(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조합 전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1. 전임기간의 임금, 승급 및 기타 급여일체는 원직과 동일하게 처우한다. 2.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복귀시키며 원직 소멸시에는 동등한 직에 복직시킨다. 3. 전임자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제23조(전임자의 처우) 회사는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 전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우한다. 1.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은 무급 휴직 상태로 간주하여 임금의 지급은 금지한다. 단, 근속연수, 기타 복리후생에 대한 처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2.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복귀시키며 원직 소멸시에는 동등한 직에 복직시킨다. 3. 전임자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

올해의 참글상 ‘홀몸노인 100만 시대’ 시리즈

특취팀 이정진·신재우, 전북취재본부 최영수 조합원 수상

2010년 올해의 참글상 대상에 특별취재팀 이정진·신재우, 전북취재본부 최영수 조합원이 송고한 ‘홀몸노인 100만 시대’ 시리즈가 선정됐다.

또 올해의 참글상 우수상에는 고웅석 카이로 특파원의 ‘천장 없는 감옥’ 가자지구 르포 시리즈가 뽑혔다.

올해의 참글상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만원, 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상패가 수여됐다.

참글상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 소외계층 보호, 사회갈등 해소 등의 내용을 담아 정의롭고 올바르게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기사를 대상으로 노조 공보위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특별취재팀이 참글상 싹쓸이?”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에서 매달 선정하는 참글상을 특취팀이 자주 수상하면서 선·후배, 동료들 사이에서는 “특별취재팀이 참글상을 싹쓸이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농담이겠지만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23대 공보위가 열달간(작년 2~11월) 총 8편의 기사를 참글상으로 선정했는데, 그 중 4편이 특취팀 몫이었다. 미혼모·홀몸노인·산재노동자 등을 다룬 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홀몸노인을 다룬 기사는 영광스럽게도 올해의 참글상까지 거머쥐었다.

어떤 선배는 ‘특취팀이 기획단계부터 참글상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아니다.

다만 특취팀의 생리상 어쩌다보니 참글상에 어울리는 기

사가 자주 기획됐던 것 아닌가 싶다. ‘특별히’궁금하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지면을 채울 말도 없고 해서 음모론의 해명을 겸해 특취팀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다. 유연비어 차단은 특취팀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특취팀은 명함에는 영문으로 ‘Investigative Reporting Team’이라고 적혀있다. 탐사보도팀에 가깝게 해석되지만 실제 특취팀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특취팀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터넷 상에 근거없는 유연비어가 퍼질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해 이를 조기에 바로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기획 기사를 쓰는 것이다. 팀을 만든 취지는 전자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간은 후자에 더 많이 할애된다.

일정한 출입처에서 현안을 서둘러 처리하는데 익숙한 통신 기자에게 기획기사는 사실 만만찮은 작업이다. 그 중에서도 아이템 발굴이 가장 고통스런 단계일 것이다. 당장 주목받는 현안은 해당 출입처의 기자가 이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특취팀이 받을 들여놓을 여지가 적다. 그렇다보니 관심은 자연스레 다소 시의성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에 돌려졌다. 특히 그동안 출입처에 매여, 쓰고 싶어도 쓰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단골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비애, 결혼을 미루는 30대 여성들의 고민, 전세난, 교육비 리 근절, 차가운 서민경기 등이 모두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사실 많은 아이템들이 기획단계에서는 망설여졌다. 솔자리 푸념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야기를 어떻게 기사로 풀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아이템이 있었고, 장애인과 미혼모, 홀몸노인과 같은 아이템은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절했고 기사화된 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서민경제 시리즈에서 다뤘던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고 싶다고 한 중소기업 사장의 전화, “홀몸노인을 도울 방법을 알고 싶다”는 고등학생의 메일은 특종을 낚았을 때와는 또 다른 희열을 맛보게 해줬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귀찮았을텐데도 특취팀 기사의 꼭지들을 책임져주신 여러 특파원과 지방취재본부의 선배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한다.(그래도 참글상 상금이 접수되면 나름 괜찮았죠?) 아울러 안팎의 갖은 의혹 제기에도 곳곳이 특취팀 기사를 평가해준 이주영 선배를 비롯한 공보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었지만 로비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참았다는 점 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특취팀 기사의 완성도는 생생한 사례수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템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뉴스제작포털에 특취팀 게시판까지 만들었지만 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팀원들이 지인들을 아무리 동원해봐야 한계가 있다. 출입처도 없는 특취팀원들을 가깝게 여겨 여러 조합원들이 부디 조금만 더 적극성을 보여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특별취재팀 이정진)



이주영 노조 공보위 간사가 올해의 참글상 수상자인 특취팀 이정진,신재우 조합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조계창 국제보도상’ 첫 수상자 선정

본사 조성대·박종국·인교준·홍제성 사원

중국 선양 특파원으로 활약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한 조계창 기사를 기리기 위해 연합뉴스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조계창 국제보도상’의 첫 수상자가 선정됐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北 여객열차 단동 도착..특별열차인 듯’이라는 제하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특종 보도한 연합뉴스 국제뉴스부 조성대 기자(당시 베이징지사장) 등을 ‘조계창 국제보도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성대·인교준·홍제성 베이징 특파원과 박종국 선양 특파원은 어려운 취재 여건 속에서도 치열한 기자정신과 열정으로 김 위원장이 탑승한 특별열차가 북·중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포착해 국내외에 신속히 알렸다.

조계창 기사는 2008년 12월 2일 중국 엔지에서 투먼으로 취재를 가던 중 타고 가던 택시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나무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다.

제24대 집행부 선거 일정

- ▲ 2011. 2월 18일(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임원선거공고, 선거인명부 확정
- ▲ 2011. 2월 21일(월)~25일(금): 후보 등록
- ▲ 2011. 2월 28일(월): 입후보자 공고, 부재자투표 공고
- ▲ 2011. 3월 2일(수)~3일(목): 부재자 투표
- ▲ 2011. 3월 4일(금): 투표(오후 7시 마감), 당선자 공고
- ▲ 2011. 3월 15일(화): 이취임식 겸 노조 창립기념식